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부산 북읍 간호학교

강 경 자

<차례>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영문초록 |
| III. 조사결과 및 고찰 | 참고문헌 |

I. 서론

인류의 간호는 간호사를 통해 보면 고대로부터 경험을 토대로한 모성애적인 간호로 시작하여 현대에는 극히 전문화된 직업으로 발전되었다. 그 중에서도 구라파의 간호사업 발달은 17세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소위 간호사의 암흑기를 제외하고도 눈부신 것이었으며 간호에 종사하던 이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여왕과 귀족출신의 간호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의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영국 후로웬스 나이팅게일 여사의 간호 이념과 방법을 중심으로한 간호 교육의 등, 서양의 보급은 간호사업 발전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의 간호교육, 업무, 행정 등의 발전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또한 서기 1899년 영국을 중심으로 결합된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국제적인 직업 여성단체로서 그 활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동양 특히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하여 시작된 한국의 간호사업은 유교사상, 남존여비의 사상 때문에 남에게 봉사하는 여성들의 특유한 직업인 간호직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으며 어느 면으로는 천한 직업으로 사회의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해방 후의 서구 문명의 도입, 6·25 동란이후 간호직의 필요성이 갑자기 증가 되었으며 또 많은 간호원들의 해외 진출은 간호기술 및 학문의 연마를 이루게 하였고, 간호직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되게하여 그 수준을 높였다. 그리하여 여성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직업으로 알려지고, 더구나 현대에는 학문적으로도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어 고도의 자격을 요하고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간호직이 과연 실제로는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척도(Barometer)를 측정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간호원 며느리는 데려와도 딸은 간호원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사회적인식이 현재에도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도 한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곳에 밝혀진 사실이 제한된 지역(부산)을 중심으로, 또 설문에 있어서도 문제를 극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신빙할만한 간호원과 직접 관계있는 계급과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반응은 뜻 있는 일로 알고 발표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는 실제로 간호직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원들을 포함하여 간호원과 직접 접촉이 많은 환자, 의사 및 간호학생과 현재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반인들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71년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였으며 방법은 설문내용을 미리 프린트하여 아래 열거한 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조사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피조사자의 이름도 기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환자 : 부산시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90명

의사 : 종합병원의 과장급 및 인턴 90명

일반인 : 부산시 서구 토성동에 소재한 기독교 사회관(어머니, 대학생 및 직원), 약국, 미장원, 유치원(어머니), 고등학교(교직원) 기타에서 147명

간호학생 : 4개 간호학교의 2-3학년 학생 108명

간호원 : 3월 26일 부산지구 제 8회 간호협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 50명을 포함하여 종합병원 간호원 93명 (Table 1 참조)

또한 대상자가 모두 다른 Group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을 약간씩 달리하였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A. 간호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 B. 실제로 본 간호원
- C. 간호직에 대한 민족감
- D. 간호직이 전문적인가?
- E. 간호원들이 학구적인가?
- F. 간호원들의 외국 진출에 대한 의견
- G. 간호원들의 사회적 문제
- H.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을 권하겠는가?

주 : 종합병원—부산대학병원, 메리놀병원, 침례병원, 춘해병원, 시립병원, 복음병원

간호학교—부산대학 간호학교, 메리놀간호학교, 춘해간호학교, 복음간호학교

III. 조사결과 및 고찰

A. 간호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1) 간호원에 대한 개념

귀하가 생각하는 간호원이란 질문을 환자, 의사, 일반인 및 간호학생들에게 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간호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활용하는 직업인”이 전체의 28.5%, “의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업인”이 19.4%, “대중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료직인”이 50.8%로 이것은 의료법⁸⁾에 “간호원은 병상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은 그 임무로 한다”에 의해 “대중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료원직”의 50.8%는 꽤 만족하며 간호원 기능에 의한 “간호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활용하는 직업인”의 28.5%(125名)도 만족한 편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업인”은 환자와 일반인에게서는 현재 어느정도 남

<표 1> 간호원에 대한 개념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학 생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간호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활용하는 직업인	15	16.7	25	27.8	36	25.8	47	43.5	125	28.5
의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업인	25	27.8	17	18.9	37	25.2	6	5.6	85	19.4
대중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료직원	50	55.5	47	52.2	70	47.6	52	48.1	219	50.8
무 응 답	0	0	1	1.1	2	1.4	3	2.8	6	1.3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108	100.0	435	100.0

특은 가나 의사 18.9%, 간호학생 5.6%에 대하여는 간호원의 전문적인 직업 태도가 분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간호직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

간호원이라는 직업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표 2에 제시한대로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가 전체의 3.2%(11명), “환자들을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가 78.9%로 압도적이었고,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가 16.1%로 각각 나타났다. 특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본 일반인보다 직접 간호원과 접촉이 많았던 환자와

<표 2> 간호직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	1	1.1	4	4.4	6	4.1	11	3.2
환자들을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	75	83.3	72	80	104	70.7	251	78.9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14	15.6	8	8.9	35	23.8	57	16.1
무 응 답	0	0	6	6.7	2	1.4	8	2.7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327	100.0

의사의 “환자들을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의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외국에 가기 쉬우므로”가 의외로 낮은 것은 간호직으로 인한 본인에게의 이점보다는 간호직 업무 자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에 대하여 의사 8명(8.9%)에 비교하여 일반인 35명(23.8%)는 수궁이 가는 현상이다.

3. 간호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표 3> 간호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경 신	72	80	81	90	124	84.4	277	84.8
지 식	12	13.3	5	5.6	13	8.8	30	9.2
기 술	6	6.7	4	4.4	9	6.1	19	5.7
무 응 답	0	0	0	0	1	0.7	1	6.2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327	100.0

간호의 3대 요소인 정신 지식 기술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신”이 277명(84.8%), “지식”이 30명(9.2%), 기술이 19명(5.7%)로 나타났다. 정신을 제일 중요시 한것은 간호원의 업무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유를 쓰는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

4. 여성과 간호원과의 관계

간호직이 여성에게 적당인가에 대해서는 <표 4> “적당하다”가 252명(76%), “적당치 않다”가 15명(4.8%), “잘 모르겠다”가 54명(17.1%)로 대부분 적당한 직업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적당치 않다”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환자, 의사에서 약 2배가 되는 것은 간호업무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표 4> 여성과 간호직과의 관계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적당하다.	70	77.8	61	67.8	121	82.3	252	76
적당치 않다.	4	4.4	6	6.7	5	3.4	15	4.8
잘 모르겠다.	16	17.8	18	20	20	13.6	54	17.1
무 응 답	0	0	5	5.5	1	0.7	6	2.1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327	100.0

5. 간호원을 “백의의 천사”라고 묘사하는데의 반응

간호원에게 유난히 상징적으로 불러주는 “백의의 천사”라는 묘사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았다. <표 5>

<표 5> 간호원을 “백의의 천사”라고 묘사하는데 온 반응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학 생		간 호 원		응답자 · · 계	평 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당한 표현	54	60	43	47.8	72	49	37	34.2	30	32.2	236	44.6
적당치 않은 표현	2	2.2	5	5.5	6	4.1	2	1.9	13	14	28	5.5
아름다운 표현일 뿐	34	37.8	41	45.6	68	46.3	59	54.6	49	52.7	251	47.4
무 응 답	0	0	1	1.1	1	0.7	10	9.3	1	1.1	13	2.4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108	100.0	93	100.0	528	100.0

“적당하다”가 236명(44.6%), “아름다운 표현일뿐”이 251명(47.4%)로서 비슷하며 “적당치 않다”는 28명(5.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Group 별로 보아 간호원에게 간호를 직접 받는 환자가 가장 많이 “적당하다”를 나타낸 것은 피로울 때의 간호원들의 간호 행위를 마음깊이 기억했음을 표시하며, 간호원 자신이 “적당치 않다”의 14%는 지나치게 상징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뜻의 “천사”란 간호원들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는 봉사 정신이 없이는 참 의미가 없고, 또 무의미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따라서 “백의의 천사”란 미명 때문에 친절과 봉사의 대가가 되며 생활 수단이 되는 보수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되겠다.

B. 실제로 본 간호원

6. 간호원들의 근무 태도

간호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 같은 의료인인 의사에게 알아본 결과는 “성실하게 한다”가 36명(40%) “의무적으로 한다”가 43명(47.8%),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가 6명(6.7%)로 “성실하게 한다”와 “의무적으로 한다”의 율은 비슷하나 “의무적으로 한다”가 조금 더 높았다.

표 6에서와 같은 반응은 병원의 시설, 분위기, 대우에 따라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반응이 섞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병원¹³⁾ 사회의 있어서의 인간 관계에서 설명이 되었다.

7. 질병상의 증상으로 고통받을 때의 간호원의 태도

환자가 질병상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때 간호원은 “성의를 다하여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가 59명(65.6%), “지극히 기계적이다”가 25명(27.9%), “무관심한 편이다”가 4명 4.4%로서 <표 7> “성의를 다하여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의 65.6%는 비교적 높은 빈도이기는 하나 “지극히 기계적이다”, “무관심한 편이다”의 각 27.8%와 4.4%도 무시 못할 빈도가 된다.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간호원에게 정신적인 요소가 결핍되었다는 뜻이라고 사료된다.

8. 정신적인 불안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

정신적인 불안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는 “최선을 다해 불안을 덜어 주려고 애쓴다”가 51명(56.7%), “약간의 동정은 보이나 별 대책이 없다”가 32명(35.6%), “전혀 관심이 없다” 3명(3.3%)로 현대 간호의 이념이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교육적·심리적·전 인격적 간호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 “약간의 동정만 보일 뿐이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의 각 35.6%, 3.3%는 환자 중심으로 간호하는 간호원을 교육시키는데 고려해야 될 면이라 본다.

C.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

9. 간호원을 직업으로 택한 데 대한 만족감

간호원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만족하다”가 21명(22.6%), “보통이다” 64명(68.8%), “불만이다”가 5명(5.4%), “보통이다”를 불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카톨릭 의대 간호학과에서 1967년에 “병원 사회에 있어서

<표 6> 간호원들의 근무태도

구 분	의 사	
	실 수	%
성실하게 한다.	36	40
의무적으로 한다.	43	47.8
억지로 마지 못해 한다.	6	6.7
무 응 답	5	5.5
계	90	100.0

<표 7> 질병상의 증상으로 고통 받을 때의 간호원의 태도

구 분	환 자	
	실수	%
성의를 다하여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	59	65.6
지극히 기계적이다.	25	27.8
무관심한 편이다.	4	4.4
무 응 답	2	2.2
계	90	100.0

<표 8> 정신적이 불안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

구 분	환 자	
	실 수	%
최선을 다해 불안을 덜어 주려고 애 쓴다.	51	56.7
약간의 동정을 보이나 별대책이 없다.	32	35.6
전혀 관심이 없다.	3	3.3
무 응 답	4	4.4
계	90	100.0

<표 9> 간호원을 직업으로 택한데 대한 만족감

구 분	간 호 원	
	실 수	%
대단히 만족한다.	21	22.6
보통이다.	64	68.8
불만이다.	5	5.4
무 응 답	3	3.2
계	93	100.0

의 인간 관계"에서 조사한 간호원 직업에 만족하다"는 55%이었다¹³⁾.

10. 간호 학생들의 간호원이 되려고 했던 목적의 만족감

간호학교에 들어와 공부하게 된 학생들의 반응은 "만족하다" 55명(50.9%), "후회한다" 22명(20.4%), "아직도 잘 모르겠다" 25명(23.1%)로 "만족하다"가 반 이상이나 "후회한다"의 20.4%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학을 전공한데 대해 조사한 결과¹⁴⁾ "후회한다" 9%, "만족하다" 24%, "그저 그렇다" 30%와도 비교가 되며 "후회한다"는 간호학생들이 높은 편이나 "만족하다"도 간호 학생들이 훨씬 높은 편이고, 결국 의사나 간호원이 되고자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11. 간호원과 간호 학생들의 불만족한 이유

학생들의 불만족한 이유는 "상상한것처럼 고귀한 직업이 아니므로" 16명(14.8%), "사회인의 인식부족" 61명(56.5%), "의사에 대한 열등감이 11명(10.2%)로서 나타났다.

<표 11> 간호원과 간호학생들의 불만족 혹은 후회하는 이유

구	분	학 생		간 호 원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보수가 업무량에 비해 적다.	0	0	19	20.4	19	20.4
	상상한 것처럼 고귀한 직업이 아니므로	16	14.8	—	—	16	14.8
	사회인의 인식부족	61	56.5	22	23.6	83	40.1
	의사에 대한 열등감	11	10.2	8	8.6	19	9.4
	무 응 답	20	18.5	44	47.4	64	33
계		108	100	93	100	201	100.0

이상의 불만의 요소에 대하여 간호 교육자는(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호 행위를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사회인들은 간호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해 줌으로서, 의사는 같은 의료인의 입장으로 간호원을 전문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서 해결할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간호원들의 불만족한 이유는 <표 11> "보수가 업무량에 비해 적으므로" 19명(20.4%), "사회인의 인식부족 22명(23.6%), 의사에 대한 열등감이 8명(8.6%)로써 보수가 적으므로써는 생각보다 적은 빈도이나 현실적으로 무시못할 일이다. 1967년 카톨릭 의대 간호학과 연구에서도 간호원들의 관심중에서 가장 큰 것은 보수문제(37.6%)였다¹³⁾. 사회인의 인식부족과 의사에 대한 열등감도 그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12. 간호학교에 입학한 동기 및 간호원으로서 만족한 이유

간호학교에 입학한 동기<표 12>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외국에 가기 쉬우므로"가 21명(18.4%), "환자들을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가 35명(32.4%), "결혼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므로"가 28명(36.7%)로 사망감 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 배나 더 많았다.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와 "결혼후 가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는 유사하나 "결혼후 가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가 좀더 높은 것은 여성적인 면을 나타낸 것인지 아직

도 간호직에 대한 사명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의 18.4%는 현재 많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간호원의 영향을 받은 것하며 이것은 <표 12>의 “졸업후 외국에 꼭 가겠다”의 19.4%와 관계됨을 엿볼 수 있다.

<표 12> 간호원 직에 만족한 이유, 간호학교에 입학한 동기

구	분	학 생		간 호 위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	21	18.4	9	9.7	30	14
	환자들을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	35	32.4	35	37.6	70	35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28	36.2	25	26.9	63	31.6
	무 응 답	14	13	24	25.8	38	19.4
계		108	100	93	100	201	100

간호원의 직업에 만족한 이유 중 “외국에 가기 쉬우므로”가 9명(9.7%),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가 35명(37.9%), “결혼 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므로”가 25명(26.9%)으로 나왔다. “외국에 가기 쉬우므로”의 9.7%는 현 간호직에 종사하면서 가장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마치 외국에 갈때를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D. 간호직이 전문직인가?

13. 간호직과 전문직과의 관계

간호직이 의사나 법률가 처럼 전문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반응은 “생각한다”가 260명(60.2%), “생각않한다”가 105명(23.9%), “모르겠다”가 56명(12.7%)로 나타났다.

<표 13> 간호직과 전문직과의 관계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학 생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생각한다.	49	54.4	58	64.4	80	54.4	73	67.6	260	60.2
	생각안한다.	27	30	17	18.9	40	27.2	21	19.4	105	23.9
	모르겠다.	14	15.6	10	11.1	22	15	10	9.3	56	12.7
	무 응 답	0	0	5	5.6	5	3.4	4	3.7	14	3.2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108	100.0	435	100.0

“생각한다”의 60.2%는 꽤 만족 할만하나 “생각 안한다”와 “모르겠다”의 각각 23.9%와 12.7%에 대해서는 전문직 간호원의 자세가 뚜렷하게 사회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간호직은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고 전문직으로서 좀 더 학문적이며 실험적이며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환자와 일반인의 “생각한다”·54.4%와 의사의 64.4%와 간호학생의 7.6%와 비교가 된다.

E. 간호원들이 학구적인가?

14. 간호원들의 계속적인 연구 여부에 대한 견해

간호원들이 계속하여 공부하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한다”가 264명(37.8%)으로 “생각 안한다”의 178명(34.2%)와 “모르겠다”가 125명(24.1%)로 나타났다. “생각한다”의 37.8%는 제일 높은 빈도이기는 하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환자, 일반인에 비해 간

호원과 교수가 많은 의사, 학생 및 간호원 자신들의 “생각 안한다”의 빈도는 오히려 높은 편이다.

<표 14> 간호원들의 계속적인 연구여부에 대한 의견

구분	환자		의사		일반인		학생		간호원		응답자 실수계	평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생각한다.	57	63.3	33	35.7	74	50.3	29	26.9	11	11.8	204	37.8
생각안한다.	9	10.1	34	37.8	35	23.8	54	50	46	49.5	178	34.2
모르겠다.	21	23.3	19	21.1	33	22.5	20	18.5	32	34.4	125	24
무응답	3	3.3	4	4.4	5	3.4	5	4.6	4	4.3	21	4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108	100.0	93	100.0	528	100.0

또 대한 간호지의 탐독도 <표 15>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가 14명으로 15.1%. “흥미있는 기사만 읽는다”가 63명으로 67.7%, “제목만 읽어본다”의 14명(15.1%)으로 간호원들의 학구적인 면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물론 “흥미있는 기사만 읽는다”를 공부를 안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며 “제목만 훑어본다”가 14명인(15.1%)은 전혀 공부를 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여튼 간호원 자신들의 “생각 안한다” 49.5%는 심각한 현상이며 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업인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계속 노력, 탐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대한 간호지”의 탐독도

구분	간호원	
	실수	%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	14	15.1
흥미있는 기사만 읽는다.	63	67.7
제목만 훑어 본다.	14	15.1
무응답	2	2.1
계	93	100.0

F. 간호원들의 외국진출에 대한 의견

15. 간호원들의 외국진출에 대한 의견

미국, 서독, 기타 외국에의 대거 진출에 대한 견해는 <표 16>과 같다. “무조건 찬성한다”의 161명으로 35.8% “1~2년 경력 쌓은 후에 진출을 찬성” 의사, 간호원의 경우 79%, “불찬성한다”가 65명으로 14.6%로서 간호원 자신들의 1~2년 경력 쌓은 후 찬성의 91.4%는 무조건

<표 16> 간호원들의 외국진출에 대한 의견

구분	환자		의사		일반인		학생		간호원		응답자 실수계	평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무조건 찬성한다.	58	64.4	19	21.1	83	56.5	—	—	1	1.1	161	35.8
1~2년 경력후 찬성	9	10	60	66.7	17	11.6	—	—	85	91.4	171	44.9
불찬성한다.	22	24.4	8	8.9	32	21.8	—	—	3	3.2	65	14.6
무응답	1	1.1	3	3.3	15	10.2	—	—	4	4.3	23	4.7
꼭 가겠다.	—	—	—	—	—	—	21	19.4	—	—	—	—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	—	—	—	—	—	79	73.1	—	—	—	—
안 가겠다.	—	—	—	—	—	—	6	5.6	—	—	—	—
무응답	—	—	—	—	—	—	2	1.9	—	—	—	—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108	100.0	93	100.0	420	100.0

* 의사와 간호원의 경우 평균

외국 진출에의 경종을 울리는 표현이 된다. 일반인에게는 “찬성한다”와 “불찬성 한다”에 대해 이유를 쓸 기회를 주었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① 국위선양 ② 의화회득 ③ 지식 및 기술연마의 순위로 나타났다. 국위선양은 매스콤에서 외국에 가있는 한국 간호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 데서 온 듯하며 불찬성하는 이유는 국내 간호원 수급부족을 들었다.

학생들은 졸업후에 “꼭 가겠다”가 21 명으로 19.4%,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의 79 명인 73.1%, “안 가겠다”가 5.6%로서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는 언제든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16. 외국진출의 이점 및 목적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국에 가는 목적을 학생들은 “의화회득”이 5 명으로 4.6%, “전문”을 넓이기 위해서가 77 명으로 71.3%, “간호

지식 및 기술습득”이 19 명으로 17.6%로서 의사들의 “의화회득” 8.9%, “전문을 넓힐 수 있으므로”의 20%, “간호지식 및 기술습득” 47.8%와는 증은 대조가 된다. 학생들 자신은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 71.3%, 외국에 가기를 더 많이 원했고, 의사는 “간호지식 및 기술습득” 47.8%를 더 타당한 이유로 들었다. 아직 학생으로서 간호원이란 직업의식이 없는 그들로서는 이해가 얇가는 것도 아니다.

<표 17> 해외 진출의 이점 및 목적

구	분	의 사		학 생	
		실수	%	실수	%
의화 회득		8	8.9	5	4.6
전문을 넓힐 수 있어서		18	20	77	71.3
간호지식 및 기술습득		43	47.8	19	17.6
무 응 답		21	23.3	7	6.5
계		90	100	108	100

G. 간호원들의 사회적인 문제

17. 국립의료원에서의 간호원 파동에 대한 의견

매스콤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국립의료원 간호원들의 파동을 의견으로 모아본 결과 표 18에서와 같이 “당연하다” 121 명으로 36.9%, “조금 자제하였으면”이 141 명인 44.4%, “처음부터 잘못이다”가 38 명(11.1%)로서 비교적 간호원들을 이해하려는 경향이였다. 일반인의 “당연하다”의 40.1%는 환자, 의사의 35.5%, 33.3%보다 조금 더 높은율을 나타내었고, 11.1%의 “처음부터 잘못이다”는 “백의”에 지나친 희생 봉사를 요구한 것인지 매스콤에서의 흑명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

<표 18> 국립의료원에서의 간호원 파동에 대한 의견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응답자 실수계	평 균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당연하다		32	35.5	30	33.3	59	40.1	121	36.3
조금 자제하였으면		45	50	42	46.7	54	36.7	141	44.4
처음부터 잘못이다.		6	6.7	10	11.1	22	15	38	10.9
무 응 답		7	7.8	8	8.9	12	8.2	27	8.3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327	100.0

H.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을 권하겠는가?

18.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 권유 여부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학교나 대학에 보내어 간호원을 시키겠다는가의 답은 “시키겠다”가 90 명

으로 17.4%, “고려하겠다”가 305 명으로 56.5%, “시키지 않겠다”가 22.8%로 나타났다.

<표 19>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 권유 여부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간 호 원		학 생		응답자 실 수	평 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시키겠다.	26	28.9	19	21.1	23	15.6	8	8.6	(14)	(13)	90	17.4
고려하겠다.	38	42.2	40	44.4	93	63.3	59	63.4	(75)	(69.4)	305	56.5
시키지 않겠다.	21	23.3	30	33.3	23	15.6	24	25.8	(19)	(17.6)	117	32.1
무 응 답	5	5.6	1	1.1	8	5.4	2	2.2	(0)	(0)	16	2.9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93	100.0	(108)	(100)	528	100.0

이것은 1967년 카톨릭의대 간호학과에서 의사에게, 딸에게 간호직을 권하겠느냐는 물음에 “권한다”의 6.02%보다 <표 19> “시키겠다” 17.4%는 훨씬 높은 율로서 이것은 갈수록 간호직에 대한 인식이 높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고려하겠다”까지 합하면 평균 73.9%여서 딸에게 간호직을 권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원 자신이 “시키겠다” 8.6%는 극히 낮은 빈도이나 “고려하겠다” 63.4%는 간호원들이 자기 직업에 비교적 만족하여 딸에게 간호직을 권유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학생들은 “시키겠다” 28.9% “고려하겠다”의 42.2% “시키지 않겠다” 23.3%로 나타났다.

19. 간호직을 권유하는 이유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을 권유하는 이유는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 6.8%,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 42.5%,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24.3%로 나타났다. Group 별로 보아 각 이유에 별 차이는 없으나 의사의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는 47.8%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간호원 자신도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의 42.9%보다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이 29.3%에 더 타당한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역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간호원의 간호를 받는 환자가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에 높은 관심을 들 것은 주의할 만한 사실이다

<표 20> 간호직을 권유하는 이유

구 분	환 자 의 사		일 반 인		간 호 원		응답자 실 수	평 균 (%)		
	실수	%	실수	%	실수	%				
외국에 쉽게 갈 수 있으므로	4	4.4	6	6.7	8	5.4	10	10.8	28	6.8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므로	49	54.4	43	47.8	63	42.9	23	24.7	178	42.5
결혼 후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18	20	16	17.8	43	29.3	28	30.1	105	24.3
무 응 답	19	21.1	25	27.8	33	22.4	32	34.4	109	26.4
계	90	100.0	90	100.0	147	100.0	93	100.0	420	100.0

결론 및 제언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간호학을 새로운 학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간호원은 전문적으로서 여성에게 가장 바람직한 직업으로 알려져 가고 학문적으로도 비록 전통은 짧지만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원을 교육시키는데는 고도의 자격을 요하고 계속 부단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이 시점

에서 잘 파악하여 보므로 간호직의 새 좌표를 세워보는데 조금 이나마 앞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저자는 1971년 3월 초순부터 1개월에 걸쳐 부산시내 종합병원, 환자, 의사, 일반인, 간호학생 및 간호원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제언을 얻은 바이다.

A. 간호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서는 “대중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이라는 반응이 50.8%로서 나타났으며 간호직이 좋다는 이유는 “환자를 간호하는 고귀한 직업이기 때문이다”가 78.9%로서 급진적인 사회의 변모와 人間의 의식구조가 많은 발전을 가져온 지금에 있어서도 예나 다름없이 간호원에게는 정신적 요소가 기술과 지식을 능가하게끔 중요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간호학생의 교육과 병원 기타 기관에서의 재 교육을 통하여 계속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야 되리라 믿는다.

B. 실제로 본 간호원

의사의 입장에서 본 실제의 간호원의 근무태도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47.8%였으며 환자측에서는 “성의를 다하여 고통을 덜어준다”가 65.6%로서 자기 다른 각도로 간호원을 보고 있었다. 간호원 자신이 환자의 정신적 불안에 대한 태도는 “최선을 다해 불안을 덜어주려고 애 쓴다”가 56.7%였으며 “약간의 동정은 보이나 별 대책이 없다”가 35.6%로서 동정적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간호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환자간호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적극적이고 적응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환자에 대한 태도를 길러 줄 것을 제언한다.

C.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에 대하여서는 우선 간호학생의 입학 동기나 현재의 만족상태에 대한 질문에 반수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간호직에 대한 간호원 자신의 만족감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의 이유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서 나타났다.

D. 간호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60.2%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였다.

E. 간호원들의 외국진출에 대한 의견을 간호원 자신이 1~2년 경력을 쌓은 후 진출을 희망한 것으로 보아 현재 국가시책에 대한 높은 찬성율을 볼 수 있었고 외국에 가는 목적을 학생입장에서는 “전문을 넓힐 수 있다”가 지배적 의견이었으며 의사들은 “간호지식 및 기술습득”이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 외국진출이 보다 자기의 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건전한 입장에서 보다 많이 국내외에 순환을 시키는 것이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리라 본다.

G. 간호원들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국립 의료원 간호원 파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자제하였으면”이 44.4%와 “당연하다”의 36.3%로서 간호원들이 직접 자기전문직에 대한 사회문제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거의 비동한 반응을 보였다.

H. 딸이나 후배에게 간호직을 권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고려해 보겠다”가 56.5%의 의견을 보였으며 이것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근친중에서 권유해 보겠다는 반응이 적은 것으로 보아 사회인의 의식깊이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Abstract

Sociological Evaluation for Nurses

Kang, Kyung Ja

This is a research on general evalu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which is a professional job, a suitable calling to women and is developing academically day by day.

The author gave some questions to the patients, doctors, people, student nurses-themselves and got the following results;

(A) General concept about nursing profession

A nurse is a member of a medical team who works for people's health promotion(50.8%).

The reason that the nursing profession is a good one is that it is a rewarding job to care for sick patients(78.9%).

The spiri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nurse(84.8%) and the nursing profession is a suitable calling to women(76%).

The description of nurses as "The angels in white dress" is an appropriate one (44.6%) or only a beautiful expression(47.4%)

(B) Nurses as actually seen by doctors and patients

They work only obligatorily(47.8%)—Doctors

They try to relieve the patient's physical discomforts in all sincerity(65.6%), also they try to decrease the patient's mental apprehension(56.7%).

(C) Satisfaction in the nursing profession.

Nurses satisfaction in the nursing profession is general(68.8%) and student nurses satisfaction in selecting nursing is fulfilled(50.9%).

One reason for dissatisfaction among nurses and student nurses is people's failure to understanding the nursing profession(40.1%), One reason for satisfaction is that it is a rewarding job caring for sick patients(35%).

(D) Is the nursing professional job?

People think the nursing profession is a professional job like doctors or lawyers(60.2%).

(E) Are they academic?

People think the nurses are academic(37.8%) but nurses read only interesting items in the "Journal of Korean Nurse"(67.7%).

(F) Opinions about nurses' going out of the country.

Doctors and nurses agree that after 1-2 years' experience in this country(78.5%) and student nurses want to go out where there is an opportunity(73.1%).

Student's purpose of going out is to enrich their stock of information(71.3%), doctors think, it is for training in nursing knowledge and skills(47.8%).

(G) Opinions about nurse's social affairs

They want nurses to be controlled(44.4%) and also think that the nurse's demonstration in the National Center was reasonable(36.3%).

(H) Would you make your daughter a nurse?

They favour their daughter's becoming a nurse(17.4%) because they think it is a rewarding job to care for sick patients(42.5%).

참고 문헌

1. 강윤희, “백의의 천사론”, 나이팅게일, No. 11, 1970, pp. 6~8.
2. 윤혜영, “한국 간호에 대한 소고”, 대한간호, Vol. 5, No. 2, 1966.
3. 이승희, “전문 간호원의 자세”, 대한간호, Vol. 7, No. 3, 1968, pp. 74~80.
4. 이영복, 간호사, 수문사, 1968.
5. 이영복, “전문 간호원의 자세”, 대한간호 Vol. 9, No. 4, 1970, p.p. 13~21.
6. 이영복, 직업적 조정, 수문사 1971.
7. 이은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제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 되는 전문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 Vol. 10, No. 1, 1971, p.p. 25~37.
8. 전산초, “전문직업과 간호연구”, 대한간호, Vol. 9, No. 3, 1970 p.p. 13~21.
9. 전산초, “변천하는 시대와 현대 간호의 경향”, 나이팅게일, No. 11 1970, p.p. 12~17.
10. 정광로, “언론계에서 본 간호”, 대한간호, Vol. 9, No. 5, 1970, p.p. 28~29.
11. 한태동, “종교계에서 본 간호”, 대한간호, Vol. 9, No. 5, 1970, pp. 30.
12. 카톨릭의대 간호학과 “병원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대한간호, Vol. 7, No. 2, 1968, p.p. 13~34.
13. 부산의과대학 학생회, “양케이트로 본 부산의대”, 의창 제 4호.